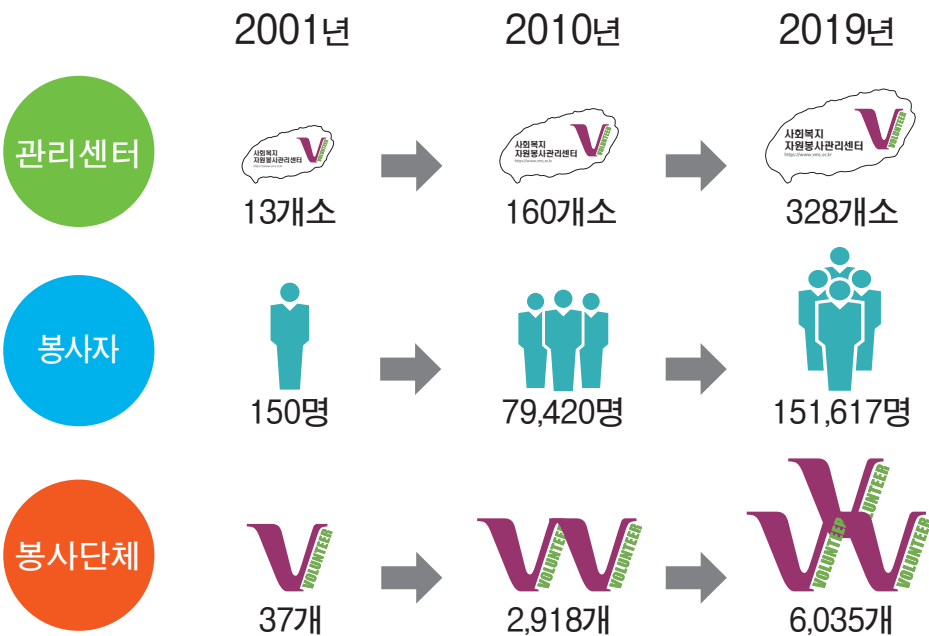


제주지역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20주년 기획



자원봉사자 20년새 1천배 급증

봉사단체도 2001년 이후 163배 꾸준히 늘어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 보상체계 확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사업(VMS)이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2001년부터 인증관리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자원봉사 육성·지원사업 지역총괄, 관리센터 지정, 인증관리요원 위촉·해촉, 관리센터 및 인증관리요원 모니터링,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증관리사업은 전국 사회복지시설·단체, 자원봉사단체·기관 등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정·보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도내 연도별 관리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13곳에서 2019년 328곳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등록봉사자는 2001년 150명에서 2019년 151,617명으로 1,000배 이상 증가했으며 봉사단체 역시 2001년 37개에서 2019년 6,035개로 163배 이상 꾸준히 성장했다.

인증관리사업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취업과 입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인증서를 발급하고,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수여, 상해보험가입, 실적에 따른 자원봉사자 배치수여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협의회는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양적성장보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과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간대별 클럽운영(배지수여식, 클럽가입 축하메시지 전달), '자원봉사자 명예의전당' 등재자 모임 'V-리더스클럽'을 운영해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8면에서 계속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출범

‘코로나19’ 위기대응… 사회복지 등 6개 분야로 구성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제주 관광업계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가 출범했다. <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3일 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태석 제주도의회의장을 비롯한 각 분과 협의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도내 경제·관광·건설·1차 산업·지역사회·사회복지 등 6개 분야 130여명의 민간기관 임·직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이 날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지속가능한 과제 발굴을 공동 결의하면서, 지역경제의 위기극복과 질적 도약을 위한 4가지 약속을 명시했다.

우선 협의체는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안전제주를 만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경제 각 분야의 미래를 전망하고, 지속가능성장을 담보하는 체질개선 과제를 발굴, 이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범도민적인 연대와 통합의 힘을 발휘해 제주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협의체의 6개 분야별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찾겠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협의체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검토를 원점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면소개

■ 종합 2면	■ 기획 7면
‘상근부회장 직제’ 폐지 이사회 의결	제주사회 기부식품 나눔 문화 ‘활발’
■ 오피니언 6면	■ 특집 8면
시론·칼럼·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화상담 후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예방 수칙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상근부회장 직제’ 폐지 이사회 의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체제로 조직 개편키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 달 14일 협의회 삼다수홀에서 2020년도 정기이사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지난 1월 13일 임기가 시작된 제8대 임원 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이사회의는 제8대 임원 임원증 전달을 시작으로 감사보고와 업무보고, 부의안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승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업무를 시작하는 시기에 개최된 첫 회의에 많은 임원들이 참석해 감사하다.”고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계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과 아라

어린이집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명예회장 선임안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한편, 이 날 정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중에 제주협의회만 유일하게 운영되던 ‘상근부회장’ 직제가 폐지되고 ‘사무처장’ 직제가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와 동일하게 ‘사무처장’ 직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이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정기총회를 통해 최종 의결될 경우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게 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대상자 모집

도, 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

기존 돌봄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신규대상자는 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선정 조사와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 5종(돌봄기본, 종합, 단기가사, 자원연계,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개편해 어르신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들에게 체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83명의 수행인력이 투입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로는 작년 대비 36억이 증가한 89억이 투입된다.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돌봄사업은 서비스 중복

지원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돌봄사업이 통합되면서 서비스가 중복지원되고 어르신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참여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어르신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기관 간 자원 공유와 이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분산·중복 관리하고 있었던(21개소) 부분을 10개 권역으로(제주시 6, 서귀포시 4)으로 구분, 총 10개의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돌봄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

복지부, 3월말까지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3월 말까지 1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1개월씩 추가 연장되지만 다음차수 도래 시에는 이전 차수는 연장이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

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연합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궁금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장한장애인대상 후보자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까지 제40회 장애인의 날(4. 20)을 맞아 ‘장한장애인대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

시상은 장한장애인대상, 장애인어버이대상, 장애인도우미대상, 장애인복지특별상 4개 분야에 6명을 선발한다.

장한장애인 대상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해 자활기반을 마련했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1명을 선정한다.

장애인어버이대상은 장애인인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부모 또는

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 중 1명을 선정한다.

장애인도우미 대상은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기관이나 단체 각 1명을 선정한다.

장애인복지특별상은 장애를 극복해 자활기반을 마련했거나 귀감이 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에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단체 각 1명을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064-710-2832)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 제2020-479호)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돈육 339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 3,845개, ▲GS네트웍스=식료품 480개, ▲(주)쿵스도어 제주이도점=빵 264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 162모,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160개, ▲대한축산유통=돼지등뼈 90kg, ▲텔문도=빵 392봉, ▲텔문도 로스터스=빵 462봉,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9,941개, ▲뚜레쥬르 제주탐라점=빵 554봉, ▲롯데제과=롯데제과식품 4,192개, ▲모양=빵 272봉, ▲미인빵=빵 91봉, ▲바바오렘=빵 142봉, ▲비엔뉴아즈=빵 228봉, ▲서예를 사랑하는 모임(아라복지관 서예동호회)=라면 멀티팩 32개, ▲소민떡방=떡 266개, ▲약속다방=빵 108개, ▲정필이오메기=떡 80개, ▲제주보리촌=보리빵 60개, ▲참새방앗간=떡 1,134개, ▲코시롱돔비=두부 126개, ▲과과무베이커리=빵 13개, ▲해맑은 떡방=155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1월 후원금 현황

(단위:원)

구 분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재 가 결 연 후 원	210,000	0
난 치 병 환 아 후 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500,000	500,000
복 지 사 업 후 원	1,005,000	0
푸 드 마 켓 후 원	3,234,390	8,910

발 행 안 내

- 발행인 : 고승화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 편집인 : 김성건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주소 :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편집디자인 : 하늘출판인쇄

‘좋은이웃들’ 사업 A등급 선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9년 평가 결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좋은이웃들 사업평가’에서 A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평가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좋은이웃들’은 우리 주

변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찾고,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해주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현재 ‘좋은이웃들’ 사업은 민·관협력력을 통한 복지 소외계층 상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소외된 우리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복지 체감

도를 높이고 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부터 ‘좋은이웃들’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작년 한 해에는 714명의 봉사자가 400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736건의 민간 자원을 연계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좋은이웃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싶은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있다.”며 “소외된 우리 이웃을 지키기 위한 ‘좋은이웃들’ 사업이 널리 홍보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이웃들’ 봉사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전화(702-4605)로 문의 하면 된다.

“폭력 예방교육 신청하세요” 기관 및 단체 대상

제주YWCA 통합상담소(소장 양금선)는 오는 12월까지 ‘2020년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사업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은 노인, 아동, 장애인, 이주여성 등 대상별 맞춤 성폭력·가정 폭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일반국민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성원, 학부모, 이주민,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며,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으



로 무료지원에서 제외된다.

규모는 20명~100명 내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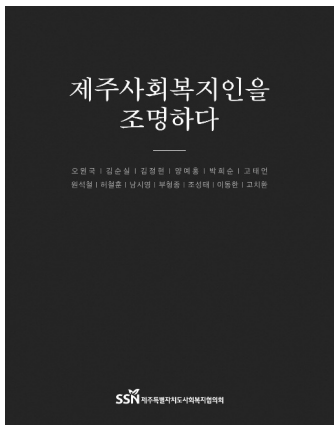
신청은 전화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shp.mogef.go.kr) 일반교육지원 신청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YWCA 통합상담소 (064-748-3040)로 문의하면 된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발간



제주복지현장을 가꿔온 제주사회복지계 원로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업적을 조명하기 위한 책자가 발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

제주사회복지계 원로 13인의 이야기 등 다뤄

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제주사회복지계 원로 13명의 이야기를 다룬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책자를 펴냈다.<사진>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김성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제주사회복지신문에 연재한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원고와故 고치환 제7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의 생

전 언론 기고문 중 일부로 제작됐다.

이번에 발간한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책자는故 오원국, 김순실, 김정현, 양예홍, 박희순, 고태언, 원석철, 허철훈, 남시영, 부형종, 조성태, 이동한 회장의 이야기와 함께故 고치환 회장의 언론기고문으로 엮였다.

김성건 사무국장은 “몇 년 동안 미뤄왔던 과제물을 이제야 제출하는 기분”이라며 “제주지역 사회복지 원로들에 대해 존경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웃사랑 식품 기탁



성산읍월동무생산자협의회(회장 강동만)는 지난 1월 22일, 성산일출봉농협 유통

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에 2,500만원 상당 이웃사랑 식품(월동무 20톤)을 전달했다.

강동만 회장은 “앞으로도 고품질 농산물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식품 나눔 문화 조성 앞장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

우)는 지난달 10일 제주양돈농협 수출육가공공장에서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4,500만원 상당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를 통해 도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 등 50여 곳에 전달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독지가·약사회, 마스크 등 기부

코로나19 확산세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기부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1일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마스크 1만개를 기부 받았다.

독지가는 마스크와 함께 제주사회복지협의회로 보낸 편지를 통해 “품귀현상 등으로 마스크도 써 보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1일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제

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도민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마스크 1만개와 손소독제 5000개를 기탁했다.

제주도약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및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뜻을 모아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된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과 푸드뱅크·푸드마켓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사회복지사 업무 환경 개선 도움

(주)준예코 고경남 부대표(제주사회복지협의회 이사)는 지난달 27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360만원 상당 제균기를 기증했다.

고 부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를 위해 앞장서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마/당

(무순)

새로운 체험 기회 마련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윤인노)는 월드비전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4~7일 동안 6명의 청소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및 수도권 일원에서 '개구리 눈(雪)을 찾아 우물을 벗어나다!' 라는 주제로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스키강습과 송어맨손잡기체험뿐만 아니라 서울야경과 경복궁 관람을 통해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신장장애인 복지협력 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회장 김우찬)는 지난달 6일 해상일식에서 협회 임직원, 관계자 등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뉴스N제주(대표 현달환)와 한효심취트니스센터(원장 한효심)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복지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통한 활동지원과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다.

다문화 가족 인식 개선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두호) 소속 결혼이민자 봉사단 '반딧불이'는 지난달 1일 소망요양원에서 진행하는 '설맞이 명절 음식 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전 부치기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나눔의 기회를 형성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봉사정신 함양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었다.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느영나영 문화예술단(단장 김영중)'은 지난달 16일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공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느영나영문화예술단의 봉사활동은 전통무용, 댄스스포츠, 하모니카·색소폰 연주 등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정서안정 · 표현력 향상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문정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성인발달장애인의 정서안정 및 표현력 향상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작품미술활동과 나무스틱퍼즐, 지압공 등의 신체활동을 통해 몸의 각 기능을 자극해 일상생활의 활력을 얻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인지활동으로 진행된다.

용돈 · 후원금 기탁 훈훈



(주)진산 김봉상 대표는 지난 1월 23일 제주양로원(원장 김진우)을 방문해 40여 명의 어르신에게 용돈과 차량구입 후원금을 기탁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김진우 원장은 "23년간 잊지 않고 매년 명절마다 외로우실 어르신들을 찾아와 용돈을 주시고, 보다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수제요구르트 후원 눈길



농업회사법인(주)아침미소(대표 양혜숙)는 지난달 7일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수제요구르트 300병(150만원 상당)을 후원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후원물품은 제주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20명에게 전달됐으며, 앞으로도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후원자 개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노인학대피해 방지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제주도의 지원으로 '어르신과 함께하는 이동상담' 사업을 지난 2월부터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해 학대피해 노인을 발굴한 후 신속한 사례개입으로 학대 위험에 노출된 노인에게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대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계 신년인사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는 지난 1월 30일 미래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청소년시설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주도 청소년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도내 청소년들의 새해 소망과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점 등을 담은 동영상 상영해 청소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애청소년 사회성 향상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최영열)는 지난달 17~21일 장애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성 향상,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겨울방학 통합돌봄교실을 운영했다.

센터는 장애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통합돌봄교실을 운영했으며 원예활동, 라인댄스, 요리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아동 · 청소년 야간보호 사업 운영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아동·청소년 통합(장애·비장애) 야간보호 사업을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2020년 복권기금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장 김남식)가 후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주중 저녁식사 제공과 기초 인성 및 학업 지도, 놀이 등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이 격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역사문화탐방 진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와 제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도내 위탁 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울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다. JDC 꿈나무 문화탐방 지원 사업으로 이뤄지는 역사문화탐방은 도내 위탁 보호 아동·청소년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론

면역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온 나라가 언제 진정될지도 모르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전국은 초 비상상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에 의한 질환이라고 한다. 모든 감염성 질환이 그렇듯이 이 질환을 어떻게 이겨내고, 방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균에 대한 개인의 저항성, 즉 면역력 여부에 달려있다.

‘면역’이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힘, 즉 외부로부터 체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거나, 병원체가 침입하더라도 이를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침범한 병원체나 독소 등을 없애주는 개인의 치유능력인 것이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외부에서 이물질이 인체 내로 침입되었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침입한 이물질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침입에

대항하는 힘이 약한 상태가 되어 결국 감염성 질환, 암, 만성 질환 등의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

면역반응에 많은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연령’, ‘영양 상태’, ‘스트레스’ 등 다양하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주장하는 학설은 다양하고 많으나, 공통적으로 권장할만한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다.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우리 몸은 생체리듬을 안정시켜 면역기관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게 된다. ‘균형있는 영양식사’는 인체의 면역능력을 향상시켜, 면역세포의 능력을 활성화 한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증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에서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따라서 잠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수면 습관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

병의 발생빈도를 높일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상태를 활력 있게 하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리 몸은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이상 감소되는 반면,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이 5~6배는 강해진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치유요소가 많은 숲길을 가끔 걸으면서 심신을 단련할 것을 권장한다.

면역력증강 방법은 간단하고, 이미 다 아는 사항이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은 가치가 없다. 자신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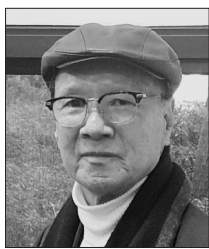


현 인 숙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수

기고

아, 1949년 그 해 가을



한 복 섭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장기이용자

1982년 10월이다. 제주시 건입동 부뚜가 건영화물 자리에서 제주시체장애인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지체장애인 20여 명이 추진위원회에 합류함으로써 제주시장애인협회로 정식 등록하고 사무실까지 냈다. 오늘의 제주시체장애인협회가 모태가 되었다고 나는 자부한다. 또한 나는 1984년부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맨 처음 조천읍 분회장, 제주시 용담동 분회장, 제주시 동제주동분회장직을 두 번씩이나 겸하면서

장애인협회 일에 종사했다.

처음으로 장애인 분야에 몸을 던져 단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 데서 큰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이곳을 일구는 데 내가 한몫을 했다는 것은 한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발걸음을 할 때마다 감회에 젖곤 한다.

정문 앞에는 따뜻한 봄날이면 양지바른 곳,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함께 서로의 벽을 허물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여 끝나는 게 아닌 장애인들의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그런점에서 ‘아름다운 동행’ ‘새로운 출발’ ‘행복한 쉼터’라는 복지관의 슬로건은 전반적인 복지관의 이미지를 담아낸 글이라 생각한다.

올해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이 되는 해다. 복지관은 지체, 시각, 농아, 지적, 신장 이외에도 많은 장애인들의 한마음이 되어 이곳에서 공생공존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책임을 맡고 있는 각 부서의 직원 선생님들은 어떠한가? 역시 친절하고 봉사의 정신으로 장애인과 혼연일체가 되어 저 흐르는 강물처럼 감동을 준다. 장애인 한마음 축제 대회가 있는 날이면 축제를 빛내기 위해 경기에 임하는 그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극진한 사랑과 아낌없는 고마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

칼럼

마을제와 치유

올해 입춘은 양력 2월 4일 오후 6시에 들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으로 접어드는 24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이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첫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마을에서는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다양한 민속행사가 열린다.

도내에서는 이 시기 대표적인 민속행사로 마을제를 들 수 있다. 마을제는 마을마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마을이 위치한 자연적 여건과 생활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발농사를 주로 하는 중산간 마을에서는 포제 또는 토신제를 섬긴다. 해안 마을에서는 해신제를 모시기도 한다. 이외에도 산신제, 당제, 풍어제 등이 있다.

이들 제례 방식은 대부분 유교적 의례에 따르고 있다. 예법은 남성 중심으로 봉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봉행일은 입춘이 지난 초정일에 지낸다. 그리고 제례를 지내기에 앞서 12명 정도의 제관들이 선정된다. 이들은 2~3일간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 제단이 있는 곳과 제관들이 머무는 마을회관 입구에는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금줄을 친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마을제 봉행일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제례는 대부분 초정일 자

공동체 결속 다지는 역할 ‘톡톡’

정 0시에 봉행한다. 초정일이란 한 달을 기준으로 할 때 십간 중에 가장 먼저 돌아오는 ‘丁日’인 날짜를 말한다. 십간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이다. 한 달을 30일로 보면 ‘丁’자가 들어있는 날은 3번 있다. 이를 순서대로 보면 초정일, 중정일, 하정일이 된다.

그런데 이번 초정일은 입춘날인 4일(丁丑)이었다. 다시 말해 입춘과 함께 초정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입춘 시간 또한 이날 오후 6시이다. 이는 자정 0시에 봉행하는 마을제 시간보다도 한 참 뒤늦다. 그래서 이번 마을제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순으로 돌아오는 14일 정일에 봉행했다. 물론 모든 마을이 이런 기준을 따른 것은 아니다. 일부 마을은 ‘戊日’이나 ‘亥日’ 파제를 하기도 했다.

이런 의례적 절차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그 마을의 관례에 따르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런 민속행사 하나하나가 주민 간의 결속을 다지는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정신적 치유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치러진 제주시 월평동 마을제 제관으로 처음 참여한 필자의 느낌이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제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다.



한 영 조

제주수치유연구센터 대표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15주년·사랑나눔푸드마켓 10주년 기념

제주사회 기부식품 나눔 문화 ‘활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와 사랑나눔푸드마켓이 지난해 각각 15주년, 10주년을 맞았다.

이에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15주년 운영보고서’와 ‘사랑나눔푸드마켓 10주년 운영보고서’를 발간해 그간의 성과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제주도푸드뱅크는 2004

년부터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맡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부자, 기부식품 지원대상자 등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푸드뱅크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기부자는 2004년 46명에서 2018년 911명, 2019년(9월 기준) 1,075명으로 2004년 대비 2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식품 지원대상자(개인)역시 2004년 240명에서 2018년 2,568명, 2019년(9월 기준) 2,402명

으로 성장했다.

이밖에도 기부식품 제공현황(누적)을 살펴보면 개인은 92,502명, 사회복지시설은 13,195개소로 집계됐으며, 제공액(누적)은 가공식품이 148억 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선식품(30억 8000만원), 일상용품(6억 6000만원), 의류잡화(6000만원), 기타상품(4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사랑나눔푸드마켓 역시

2009년부터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랑나눔푸드마켓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살펴보면 기부자, 기부식품 지원대상자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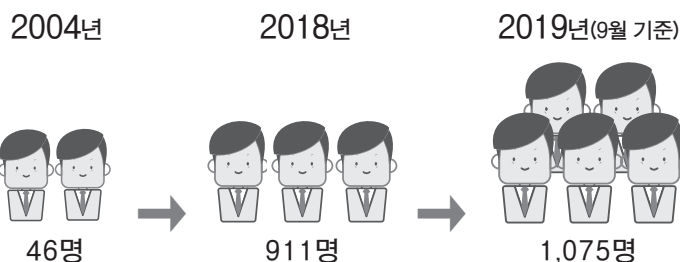
기부자의 경우 2009년 13명에서 2018년 246명, 2019년(10월 기준) 264명으로 증가했으며, 기부식품 접수건수도 2009년 57건에서 2018년 1,370건, 2019년(10월 기준) 1,514건으로 집계됐다.

기부식품 제공건수도 2009년 17,395건 2018년 47,628건, 2019년(9월 기준) 55,796건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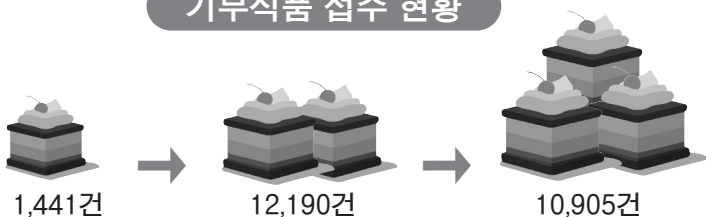
이와 함께 기부식품 제공현황(누적)을 살펴보면 개인은 26,070명, 사회복지시설은 268개소로 집계됐으며, 제공액(누적)은 일상용품이 1억 20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뒤를 이어 가정용품 4000만원, 의류잡화 900만원, 기타상품이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기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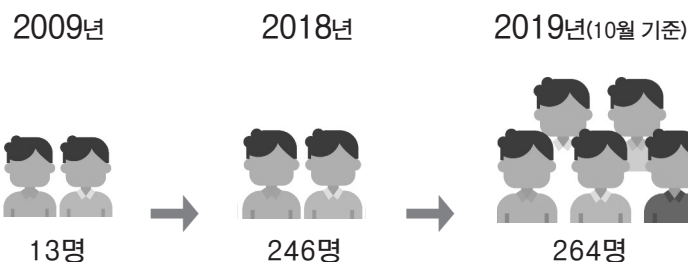


기부식품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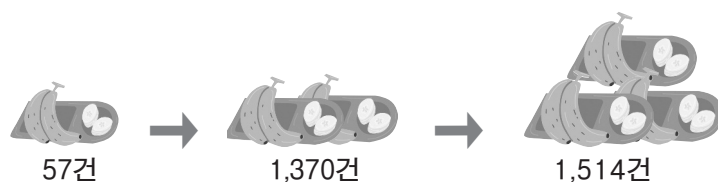


사랑나눔푸드마켓

기부자



기부식품 접수 현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개 ㉠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 만족도 높여

제주에는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142호부터 장애인직업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돕고자 시설과 함께 주요 생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한라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박상현)은 사회복지법인한라원 산하시설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해 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보호 작업장으로 자립생활과 작업능력이 가능한 지적장애인들에게 직업 훈련기술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립과 자립을 돕는 등 든든

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설은 30명의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반, 제과·제빵반, 암암브레드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도내 유일의 제과·제빵사업 및 국방부 쌀케이크 납품 시설이다.

▲ 제과·제빵사업

제과·제빵사업은 안전한 환경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가족에게 드리는 건강한 맛, 정성가득 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백련초, 우도땅콩, 제주감귤 등을 이용한 선물세트 등 다양한 신제품개발로 제주도를 상징하는 특색 있는 제품을 담아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 시설장애인들이 빵을 만들고 있다.

▲ 쌀케이크 사업

시설은 국방부 쌀케이크 납품시설로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기준과 심사로 특허 받은 쌀무스케이크(10-1060297)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쌀로 만든 케이크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국방부 소속 장병들에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한라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도내 유일한 생산 시설로 제품 기술연수 및 품질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제과·제빵 기술을 습득한 직업훈련교사를 통해 근로장애인들의 직업적 훈련 및 다양한 직무에 기술을 익혀 다양한 생산품으로 보답하고자 신제품 개발 및 구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20주년 기념 인터뷰 / 인증요원 김미리씨

관련기사 1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싶어요”

제주양로원은 2001년부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로 최초 지정된 기관으로 지난 2019년 우수관리센터로 선정된바 있다. 양로원에서 인증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리 씨 역시 지난해 우수인증요원으로 선정됐다. 이에 김미리 인증요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인증요원이 하는 일은?

자원봉사자들의 초기 상담을 통해 유의사항 전달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봉사 후에 봉사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점은?

다양한 이유로 봉사자들

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다른 시설에서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으나 수요처 연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인증관리시스템 안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준다면, 급하게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 좀 더 원활히 이루어 질 것 같아요. 또, 인증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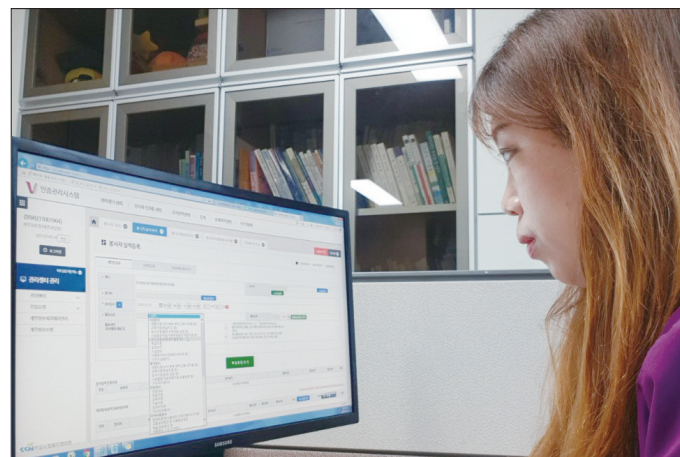
봉사활동을 위한 통일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느 시설에서든

자원봉사자의 활동영역이 전문화 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이뤄질 것 같아요. 봉사자들에게 다양한 포상 등을 통해 봉사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억에 남는 사례는?

제주양로원의 가족봉사팀은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천명이 함께 하는, 천원의 행복’이라는 후원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부모가 채워주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길을 만



▲ 김미리 인증요원이 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실적을 입력하고 있다.

들어 주는 모습을 볼 때면 가장 보기 좋아요.

▲ 앞으로의 계획은?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고

싶어요.

또한 봉사자들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해 우리 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 이웃들에게도 나눔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거예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68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황 인 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우연히 길에 떨어진 동전이나 지폐를 발견했을 때 뜻밖의 횡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주머니로 그것을 옮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난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양심적으

로 주인을 찾아주었다는 미담이 뉴스에 나올 정도의 세상이다.

우리 법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규정되어 있는데(형법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승객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보관하던 택시 기사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을 살

펴보고자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469).

A씨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실수로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고 나중에야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본인의 스마트폰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인의 휴대폰으로 본인 휴대폰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습득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자발적으로 돌려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 연락이 없었고 경찰에 신고한 끝에 당시 택시를 운전하였던 기사 B가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도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까지 3일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 법에 따라 택시 기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B는 분실된 휴대폰을 발견하여 돌려주기 위해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에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터리가 방전되어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본인이 가지려고 했던 것인지, 돌려줄 마음이 있었는지 B의 속마음이 쟁점이 된 재판에서 1심 법원은 B에게 돌려줄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B가 유죄라고 판단

했다. 잠금장치가 걸려 있지 않은 휴대폰이었기 때문에 돌려줄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연락을 받거나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가 유죄의 주요한 근거였다.

우리 대법원은 택시 기사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조사마다 스마트폰 잠금 방식이 다소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방식의 잠금 여부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이 2심 판결을 뒤집는 이유가 되었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증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사례발표 (하)

“나누는 삶 실천 하고 싶어요”



현 공 식
좋은인연봉사회

제가 봉사활동을 알게 된 것을 참 좋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3년 전부터 5개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면서 제 마음 속에 연이 닿으면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

다. 그러던 중 후배가 좋은인연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으니 같이 해보자라는 말을 듣고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회원들과 함께 시설봉사, 협의회에서

함께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인연 봉사회는 나이를 불문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천사 같은 분들이 여기에 모두 모여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여기 소속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회원들과 보람과 행복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제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싶습니다.